

음식의 고장 전북 “손 맛 보여줄게”

지역 농산물 활용 食 프로그램 풍성 교육·캠프·요리 대회 등 기획 운영 행사 참가희망자 선착순 모집 중

전북도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여 바른 식생활 교육의 범 도민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롭고 풍성한 식(食)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食) 프로그램은 지자체 자율 권장사업으로 바른밥상, 밝은 100세, 학교급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및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사업으로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수요를 반영해 기획했다.

학교급식 전반제로 우수학교 선정은 전북 지역 초, 중,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를 극복 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 건강, 배려의 식생활개선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급식 잔반제로 사진 콘테스트 및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가족건강 식생활 캠프운영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결식문제, 외식

문제, 아동 스스로 식사를 선택하는 기회 및 이용률이 증가하는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활용,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직접 체험하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족 식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건강 식생활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북청년 집밥 프로젝트운영은 우리 시대의 고달픈 취업준비 학업 및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건강한 요리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지혜를 공유하며 청년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전북의 웰빙집밥 요리대회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과 향토 음식이 잊혀져 가고 있는 시기에 음식의 고장

전북의 숨겨진 손맛을 발굴하기 위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고수들의 웰빙 집밥 요리 대회를 통해 전북지역 곳곳에 숨겨져 있는 향토 음식과 우리 전통 음식의 장점을 발굴해 레시피를 전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련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 사무국에 전화나 메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라북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 공간을 통한 다채로운 농업 농촌 체험 활동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밥상 문화가 정착되도록 바른 식생활교육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산단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태부족

도, 전국 32개소 중 3곳 불과 중기 밀집지 설치 적극 추진 비용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전북도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일,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방법, 우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에게 참여 독려 및 도와 시군의 재정적 지원내용도 안내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90%,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외에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는 월 120만원, 운영비는 200~520만원 지원한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청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단지 또는 지역내 우선 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의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이면 신청 가능하다. 2017년 9월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32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인 중소기업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농생명산업 견인차 역할 해낼 것”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포럼 전문가 100여명 열띤 논의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일, ICT융합형 스마트 농생명·바이오산업 전북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분야 전문가 릴레이 포럼(2차)을 개최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스마트 농생명·바이오산업분야 전문가, 도내 혁신기관, 기업,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포럼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1차 전문가 릴레이 포럼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농기계, 농생명,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

구상과 산·학·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제4차 산업혁명 대응할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기획했다. 이번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분야별(농생명·바이오산업, Smart Food Tech, 스마트 커넥티드 팜) 전문가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 내 전문 패널들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자·식품·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벨리로 조성해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정부의 사이러스 하비 부지사를 비롯하여 포르트 상원의원 및 현지 기업인등 방문단이 20일 전북도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하비 부지사가 송하진 도지사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있다. 하비 부지사는 8살 때 입국하여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선정한 미국 차세대 정치인 40인에 선정됐다.

워싱턴주 부지사 道 방문... 교류확대 청신호

비즈니스 포럼 개최 양 지역 경제협력 모색

전북도는 20일, 20년 만에 새로 선출된 사이러스 하비 부지사 일행이 전북을 공식방문, 도지사 및 도의장과 면담을 갖고 전북·워싱턴 주간 우의를 확인하는 등 향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방문은 워싱턴 주정부 쪽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

으며 하비 부지사, 포르트 상원의원, 리아스 상원의원, 신디 류 하원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현지 기업인,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2023 세관금 세계잡버리” 유치 성공을 축하하는 인솔리 주지사의 친필서한을 언급하면서, 상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양 지역의 경제·통상 등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하비 부

지사와 공유했다. 공식면담 후에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전라북도·워싱턴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전북과 워싱턴주의 경제현황과 역점 산업을 소개하고 도내 주요제품 전시 및 기업인 간의 면담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협력력을 모색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전북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에 참석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이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전 세계 다른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수준 높은 공연에 감탄하며 향후 문화·예술 교류 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미국 워싱턴 주와는 최근 10년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2015년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전북을 방문하고, 2016년에는 전북도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워싱턴 주를 공식 방문한 것이 전환점이 되어 민간·문화·청소년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농관원 정읍사무소 새 청사 신축 밀그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정읍사무소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정읍시 농소동 삼화타운 옆 신축부지로 이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정읍사무소 청사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 그간 정읍사무소를 찾는 농업인 등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34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 설계에 들어

간 뒤 내년 4월 착공해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해 12월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연면적 706㎡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사무실, 민원안내실, 농산물검사 감정실, 표준품실, 농업인 교육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순창군 공고 제2017-567호

분묘개장 공고(2차)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쌍치-산내간 국지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 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 중 추후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기수	비고
1	쌍치면 요봉리	산27-4	임야	분묘	1	

2.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개장사유 : 쌍치-산내간 국지도건설공사에 편입
- 나. 안치장소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지정된 장소에 개장
(※표지 인근 공공묘지 우선선정)

3. 공고기간 : 3개월간(2017.09.19.~2017.12.25)

4. 개장방법

-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 임의 개장

5. 신고처 : 순창군청 안전건설과 김규태 ☎ 063-650-1825

6. 신고방법 : 상기 공고 기간내에 연고(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후 개장하여야 함.

2017년 9월 21일 순창군수